

박지원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하면 ‘분당’ 되는 것”

“현재 진행형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 분당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의 진행형으로 보면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광주에서 어제 개혁신당(토론회)에서도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심지어 발제자 최영배 전대 교수도 합의 이혼이 낮

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방송에 나왔을 때 합의 이혼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귀가 솔깃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며 “하지만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는 것은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가랑비를 맞고 있다. 맞아서 옷이 젖어 버렸는데 (대표가) 통합 선언을 하면 우리는 이미 옷이 젖어서 주저앉지도 못하고 옷을 벗어던질 수도 없다”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대표가 (통합 취소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을 입력하고 있는데 이 입력으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도한

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갈등이 심해서 통합 가능성지 의문이다. 그러나 선거연대는 열려 있고 국민의당과 끝내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신 바른정당’, ‘후 한국당’ 통합으로 가는 것이 유 대표의 말로 확인될 수 있다”고 반증했다.

유 대표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문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 얘기가 나올 것’ 보편적인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며 “(안 대표가) 이후 한국당과 통합해서 거기서 중도보수 대표로 자기가 한번 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오른쪽 두 번째부터) 원내대표와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로 제2정조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정책위의장.

안 국민의당 지도부 재구성...최고위원에 김중로 내정

한달째 공석인 수석대변인에 권은희 내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내정하며 지도부 재구성에 나섰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후임 지명직 최고위원은 김종로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권은희 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전부터 이야기

하다가 어제(13일) 정식으로 전화로 이야기해서 수락했다”고 밝혔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됐다. 신임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상태다. 수석대

변인은 지난해 손금주 의원이 불연사퇴의사를 밝힌 뒤 28일 간 공석이였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어제 안 대표를 만나 수석대변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내일까지 논의는 해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의에는 김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수석대변인 임명에 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엑소 첸백시-송혜교 만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배우 송혜교와 가수 엑소(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과 14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CNCC(국기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태 “文정권에 화끈하게 협력”

“제10당 의도적 패싱하면 들개처럼 싸울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제10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손쉬운 뒷거래로 국정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한국당은 거센 모래

벌판 그리고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물 주고받기식 밀실 뒷거래를 한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그 장물들이 바로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헌 논의 등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

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사안들을 제10당과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도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과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중동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면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하는데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길래 국민적 의혹까지 야기하며 중동을 방문했는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하태경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 발의...한국당, 협조하라”

“김성태 언행일치 보여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특활비 문제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당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 출처가 국회 특활비에서 나왔다는 강한 의혹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오늘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단체가 홍

준표 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 신(新)보수를 주장하면서 보수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혁신은 자기 자신의 회생에서 비롯된다. 특히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5년 당시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라디오 인터뷰 발

언을 읽어드렸었다”면서 “홍 지사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세금을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썼다는데 국민들이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게 김성태의 과거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5년 했던 말처럼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한다. 홍준표 대표 특검에 한국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서 국회 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